

제 8강 헬레니즘 시대의 종교 I

◆ 헬레니즘, 그 시대적 흐름

▲ 철학과 종교

- ‘철학’이라는 것은 경험과 사유를 통해 열린 탐구를 이어가는데, 어떤 사상이나 이론을 궁극적인 진리로 고정시키지 않고 새로운 경험과 사유를 통해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종교’는 특정한 인물의 사상이나 이론을 진리로서 고정시켜 받아들이는 것이다. ‘종교’는 ‘철학’에 비하여 제도적 장치(건축물, 교회, 절, 제복, 노래, 기도문 등)를 중요시한다. 철학과 종교가 대비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종교의 교리도 철학체계를 갖추어야 할 부분(세계관, 인간과의 관계)을 가지기 때문에 철학과 종교가 겹쳐지는 부분도 있다. 중세 시대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등의 종교가 확고한 철학으로 굳어진다. 즉 이러한 종교사상이 국가의 교리로 굳어진다. 때문에 중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사상에 대한 공부와 필요하다.

▲ 헬레니즘 시대의 종교 : 지중해 지역

- 지중해 시대 종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다(반면 불교는 무無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 헬레니즘 시대는 본격적인 철학이라기보다 ‘안심安心’에 포인트가 있고 이른바 **인생철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세계를 인식하고 변화시키기보다는 **구원에의 갈망**이 지배하던 시대 즉 ‘종교의 시대’였다. 헬레니즘 시대는 크게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의 유물론과 여타 종교사상으로 나눌 수 있다.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학파가 초월성의 거부를 통해 유물론적 철학을 세우고 행복을 추구했다면, 그 외 대부분의 사조는 종교의 형태를 띠었다. 헬레니즘 시대의 종교적 사상을 지배한 것은 기본적으로 플라톤주의이다. 이는 이원론, 플로티노스의 신플라톤주의, 기독교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 플라톤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분위기로 각색된 플라톤이 주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이 플라톤주의는 변질된 플라톤주의이며 오리엔트적 종교들 및 신비주의(점술, 점성술, 해몽, 예언술, 점신술 등)이 가미되었다.

▲ 신뮈타고라스 학파

- 오르페우스교와 뮈타고라스 학파가 결합된 **신뮈타고라스파는 플라톤적인 이원론을 극단적으로 강조했다.** 이들은 플라톤이 은유적으로 말한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극히 사변적이고 초월주의적인 교리들을 만들어냈다. 육체와 영혼의 날카로운 이분법, 윤회설(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있으므로 다른 육체로 들어갈 수 있다), 상기설(영혼이 육체를 가지기 전에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 그것의 회상에 대한 설) 등이 특히 그렇다. 초월성에 다가가려면 육체를 벗어나야 한다고 믿었고(육체와 영혼의 날카로운 이분법, 육체는 영혼의 감옥, 물질적 material 인 것을 악하다고 여김) 그래서 동방에서 유래하는 여러 신비주의적 의식儀式들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 영지주의 gnosis 학파 : 신지학(神智學)

- ‘영지주의靈知主義’=그노시스파 역시 이원론을 견지했으며, 당시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기독교에도 스며들었다. 사해문서가 발견된 후 많이 논의가 되어 당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들에게서 현실세계는 악한 신인 데미우르고스(플라톤이 언급했던)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물질의 세계를 초월해야 영혼들만이 사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죽음이 그 통로이다. **육체(물질적인 것)를 초월해야 영혼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영지주의는 서구 문화사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현재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현대 칸딘스키, 몬드리안 등의 추상회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노시스파는 교리가 지나치게 어두운 탓에 기독교에 의해 이단으로 단죄되었다. 그노시스파에 의하면 아담과 이혼한 이브가 사탄(악한 신)과 결혼하였고, 인간은 이브와 사탄의 자식이라고 한다. 이는

애니메이션 <신세기 에반겔리온>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 참고자료

신세기 에반겔리온 [Neon Genesis Evangelion], 1995, 안노 히데아키
전투병기인 에반겔리온을 조종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그린 일본 애니메이션.

▲ 오리엔트 지방의 종교

- 오리엔트 지방에는 마니교, 조로아스터교 등의 선악의 이원론, 빛과 어둠, 영혼과 육체 등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진 종교들이 등장했다. 이원론적인 사고는 이후로도 서구 지성사에 지속적 영향을 끼친다.

▲ 플로티누스(Plotinos)의 신플라톤학파

- 플로티누스(Plotinos)는 플라톤을 보다 종교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여 이른바 **‘신(新)플라톤’ 학파**를 만들어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잇되 좀 더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사유로 나아갔다면, 플로티누스는 보다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사유로 나아갔다. 중세 사람들이 플라톤의 사유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상 상당 부분 플로티누스의 사유였다. 플로티누스와 그 후계자들은 대개 오리엔트 지방(이집트 등) 출신이었으며 그리스-로마적 전통에 오리엔트적 요소들을 가미했다.

▲ 플로티누스(Plotinos)의 철학

- 플로티누스의 철학은 흔히 ‘유출설流出說’(흘러나오는 것)로 불린다. 플라톤이 감각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을 나누었다면, 플로티누스는 존재들을 위계적으로 배열한다. 궁극적 존재는 **일자(一者=the One)**이다. 다른 존재들은 일자로부터의 유출을 통해서 성립한다. 일자는 넘쳐흐르는 그 무엇이기에 때문에 유출한다. 다른 존재들은 각각 구분되긴 하지만 서로 이어지면서 마지막에는 물질에 도달한다. 따라서 물질의 세계에서 출발해 존재의 사다리를 올라가 일자에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플로티누스의 사상은 연속적 초월의 사상**이다. 플로티누스의 사상은 **일원론적**이고 **연속주의적**이다. 그래서 일자는 어디에나 임재(臨在)한다(‘parousia’의 사상). 이 임재가 초월의 근거가 된다(플로티누스의 친구이자 제자인 포르퓌리우스는 플로티누스 자신이 일생에 네 번 접신接神했다고 전한다). 플로티누스는 일원론 철학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원론적(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체계)인 마이너스가 없다. 다만 플러스의 계속적어지는 방향이 있을 뿐이다. 악은 선의 결여(privatio)이다. 일자가 아닌 것들은 악이 아니라 일자의 결여태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빛이 약해지는 것과 같다. 플로티누스의 철학은 ‘존재의 충만함(plenitude of Being)’이다. 물질은 일자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일자의 약화(弱化)의 극한일 뿐이다. 일자 자체는 서술할 수 없다. 서술 자체가 일자를 분열시키기 때문이다. 서구 존재론(형이상학)은 항상 서술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 'God is good'이라는 명제에서 ‘신’이라는 주어에 ‘좋다’라는 술어가 붙을 수 있는가. 만약에 붙는다면 ‘철수는 좋다’에서의 ‘좋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다만 일자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일자 아래의 단계는 **이성理性(nous)**의 단계이다. 이것은 순수정신으로서 사유라는 것 자체이다(사유하는 존재가 있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영혼(psyché)**이 있다. 이는 약간 형이하학적인 색채를 가지는데 사물을 조직하고 운동하게 만들고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 영혼이다. 즉 영혼은 조직화의 원리(생명의 원리)이다. 그 아래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물들, 동물, 식물, 물질이 존재한다. 플로티누스는 훗날 기독교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 일자의 ‘유출’은 ‘은총’과 대응된다. 피조물이 신과 단절되어있지만, 그럼에도 신의 그 무언가가 이곳까지 오는 것은 은총이다. 플로티누스의 일자는 대상과 연속적으로 교통하려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불연속이 도입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로티누스에 입각해서 기독교의 철학을 구성했고, 그 철학이 중세로 이어진다.

▲ 플로티누스의 저작

- 플로티누스의 저작으로는 9 편의 글을 모아 한 권으로 해서 모두 6 권으로

된(54 편) 『에네아데스』(‘아홉 벌’이라는 뜻)가 있다. 이 책은 포르퀴리오스가 편집한 것이다. 몇 개의 전제만 신비주의적이고 내용 자체는 논증적인 책이다.

헬레니즘 시대의 종교 II

◆ 유대교와 기독교

▲ 유대교의 기원

-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연원하지만 예수를 새로운 분기점으로 인정함으로써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한 지류支流이다. 유대인들의 원래 뿌리는 ‘히브리인들’로 알려져 있다. 그 후 야콥의 다른 이름으로서 ‘이스라엘’이 생겨났고, 훗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을 때 남쪽 국가가 ‘유대’가 된다. 유대가 바빌로니아에 망한 이후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디아스포라 diaspora’는 팔레스타인 외역外域에 살면서 유대적 종교규범과 생활관습을 유지하던 유대인, 또는 그들의 거주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산離散 유대인’, ‘이산의 땅’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역사적인 서술에서 이 단어는 헬레니즘 문화 시대와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를 통해, 그리스 근역近域과 로마 세계에서 유대인의 이산을 가리키고 있다.

▲ 예수에 대한 관점의 차이

- 유대교에는 예언자 prophet 전통이 있는데, 이들은 일종의 영적 지도자들이다. 유대교는 예수를 예언자중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데 반해, 기독교는 예언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유대인들은 사막의 유목민들로서 야훼(여호와)라는 신과의 ‘계약’을 통해서 종교생활을 했다. **유대 기독교 전통의 중요한 개념은 이 계약(약속)**이다. 때문에 이들의 경전은 ‘약約’으로서 표시된다. 유대교의 경전은 토라, 예언서, 성문서의 세 파트로 나누어진다.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경전을 구약이라고 부른다(유대교에는 신약이 없음). 토라는 기독교에서는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라 부른다. 그 후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일들은 ‘예언서’라 불리는 경전들(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및 ‘후기 예언서’(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에 나타나 있다. 토라와 예언서가 일종의 역사서라면 ‘성문서’는 그에 동반되는 시, 잠언 등의 여러 가지 문서들(documents)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예수를 별개의 갈래로 보는 기독교입장에서는 복음서, 사도행전, 서한서, 묵시록 등이 있다. 유대교는 인격신인 유일신과의 약속, 선민의식, 배반과 구원의 반복, 메시아주의(미래를 중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목민들은 주로 공간보다는 시간 과거보다는 미래를 중시하는 측면이 있다. 오늘날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로서만 다루어지며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이어지고 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는 유대교의 한 예언자이며 타락한 유대교를 다시 세우려 한 사람이다. 이것은 예수 자신의 말로 알려진 구절에서도 확인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나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점, 일 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따라서 유대교 경전은 성문서에서 그친다.

▲ 기독교의 창시

- 예수의 후계자들은 예수를 유대교로부터 갈라져 나오는 하나의 새로운 갈래로 만들고자 했다. 예수가 예수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만든 것이다. 특히 바울이 그런 작업을 했으며, 이 점에서 **기독교의 창시자는 바울**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이 예수의 전설을 활용해 유대교로부터 단절되어 나오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것이다. ‘christ’라는 말은 희랍어인데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었다. 메시아란 말이 유대 민족을 가리킬 때도 있다. **예언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희랍어로 번역**한 것이고, 이것을 이름으로 만든 것이다. 'Christ Jesus' (예언자 예수)라 해야 하는데, Jesus Christ(이름으로써 예수 예언자), 고유명사로 바뀐 것이다. 예수의 생애는 네 종류의 『복음서』에 수록되어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기록된 것이어서 신빙성에 대한 논의가 그치지 않는다. 예수의 말 자체는 철학적인 이론 theory 이 아니다. 사상적 틀을 부여한 것은 바울의 서간지(편지)이다. 유태교와 기독교와의 차이를 가르는 예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 기독교의 세 가지 특징

- 희랍적(그리스적)인 사고와 기독교적 사고가 전적으로 다른 것은 **‘창조’**의 개념이다. 희랍적인 창조는 질료와 형상을 전제하는 창조이다. ‘ex nihilo nihil fit, 무無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기독교에서는, ‘creature ex nihilo, 완전한 무로부터의 창조’를 뜻한다. 이 세계(피조물)의 운동은 이 세계 차체의 운동이 아니라, 마치 인간이 컵을 만드는 것처럼 제작된 것이다. 형상은 신의 생각, 관념이다. 희랍 체계의 이데아가 신의 관념이 된 것이다. 데미우르고스는 이데아를 확인하며 빛는다. 신의 이데아는 자신의 관념에 따라 빛는다. 그 관념은 신의 ‘말씀’으로 나타난다. ‘빛이 있으라.’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없고 기독교들(수많은 해석체계)만 있다. 또한 기독교는 **‘죄’와 ‘은총’**의 개념이 있다. 이는 바울의 창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울이 생각한 ‘죄’는 간음, 도둑질, 살인 등 구체적인 죄가 아니고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었다. 조금 선한 행동을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며, 구원은 신이 해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스러운 존재이고 외면적인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구원(죄 사함)은 철저히 신의 은총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동(선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고 기다리는 것’ 뿐이다. 바울이 정신병자라는 의견도 있다. 일본의 정토진종(실란교)도 바울의 기독교처럼 묘하게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타력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속’**의 개념이 있다. 신약과 구약을 잇는 개념으로 ‘언약과 배신’의 과정이 있다(노아의 방주). 구약에서 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는 자로서 예수를 인정한다. 어떤 이들은 신이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신 스스로가 내려온 것이라 한다. 여기서 ‘삼위일체 trinity’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 기독교의 ‘대속’ 개념

- ‘대속’은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으로 **기독교의 핵심적 개념**이다. 유태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협한 선민의식을 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모든 인간이 신 앞에 평등하다’는 교리는 로마사회에 기독교가 널리 퍼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가, 라는 질문에 기독교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신부가 자살하려는 살리에르에게 ‘인간은 신 앞에 모두 평등하다.’ 라고 말한다. 살리에르는 ‘신이 평등한데 왜 모차르트는 뛰어나고 나는 그렇지 못한가’ 라고 반문한다. 현실에서 보자면 왜 누군가는 기형아로 태어나고 또 누군가는 건강하게 태어나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이는 평등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것은 기독교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기독교는 유태교와는 달리 자유롭게 그리스문화를 끌어들이 수 있었으므로 보다 세련된 담론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는 자이나교도 마찬가지이다. 무엇인가를 제약(금지)하는 부분이 많아 불교에 밀려났다.

* 참고자료

<아마데우스 Amadeus>, 밀로스 포만

1984년도 아카데미 작품상·감독상·주연남우상 등 8개 부문 수상

▲ 지중해(헬레니즘) 세계 종교의 특징

- 이 시대 종교의 특징 중 가장 일차적인 것은 **‘초월성에의 갈망’**이다. 이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물질, 몸, 육체)는 부정적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둘째로 ‘materiality’에서 **‘spirituality’로의 갈망**이다. 이는 서구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성격을 띤다. 마지막 특징은 **‘믿음’**이다. 믿음(belief 가 아니라 faith)이 지속되면 계시(은총)이 온다는 것이다. ‘인식론적 은총’이 곧 계시를 의미할 수 있다. 계시를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초월 지향적 사고의 한계, 즉 문제점이다. 부정적으로 보자면 이런 식의 사고는 객관적 사회 현실에는 둔하며, 따라서 사회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나 실천적 의식이 결여되기도 한다.